

# 역사의 뒤편길에 놓여 있던 북한-베트남 밀월의 기록

도미엔 지음, 『붉은 혈맹: 평양,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전쟁』(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을 읽고

이신재 군사편찬연구소 조사연구부장

## I. 역사의 풍경화에 빠져 있던 이야기

냉전사 연구자 개디스(Jonh Lewis Gaddis)는 자신의 저서 『역사의 풍경(The Landscape of History)』에서 역사가를 화가에 비유하였다. 화가가 자신이 바라보는 풍경을 그리듯 역사가 또한 역사라는 풍경을 기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가나 역사가가 그리는 풍경이 처음부터 완전하기란 쉽지 않다. 풍경 어딘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마련이고, 역사도 오랜 시간 베일에 가려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밀스러운 나라’의 역사가 세상에 알려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냉전기 북한과 베트남 관계도 그러했다. 1950년 국교를 맺은 두 나라가 걸어왔던 길을 우리는 잘 알지 못했다. 두 나라의 관계 속에는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베트남전쟁이라는 ‘거대한 풍경’이 놓여 있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간간이 북한의 참전에 관한 이야기도 흘러나왔지만, 북한과 베트남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다.

2000년 3월 한 언론 보도는 이런 상황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 한국의 연합뉴스가 베트남 하노이 외곽의 박장(Bac Giang)에 있던 북한군 묘지의 존재를 밝혀낸 것이었다. 북한 외무상 일행의 베트남 방문일정을 취재하던 중 확인된 이 묘지가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북한군 전사자들을 안장한 곳이라는 사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동안 각종 설로만 제기되던

역사적 사실이 공식적인 ‘물증’과 함께 확인된 것이었다.<sup>1</sup> 그야말로 ‘특종’이었다. 동시에 그동안 역사의 뒀안길에 놓여 있던 북한과 베트남 관계에 대해 미처 그리지 못한 풍경화도 조금씩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이 책 『붉은 혈맹』은 오랜 기간 북한과 베트남 관계를 연구한 도미엔 박사의 2022년 출간작이다. 저자 도미엔 박사는 냉전 시대 베트남과 한반도 관계를 연구하는 전문가이자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마친 베트남인 연구자이다. 저자는 지금껏 역사의 풍경화에 빠졌던 기록을 찾아서 퍼즐을 맞추는 지난한 작업을 계속해 왔고, 그 결실을 ‘붉은 혈맹’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았다.

2000년대 이후 북한과 베트남 관계, 그리고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양국관계를 고찰한 의미 있는 성과들이었다. 그러나 기존연구들과 비교할 때 도미엔 박사의 연구는 두 나라의 관계 형성과 전개, 베트남전쟁과 북한의 지원, 그리고 전쟁이 북한 내부에 미친 영향 등을 망라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무엇보다 베트남 학자가 베트남 내부 사료를 발굴하여 역사적 사실을 규명한 점은 아마도 도미엔 박사만이 할 수 있었던 성과이자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II. 한반도와 인도차이나의 대칭적 관계 형성

한반도와 베트남이 위치한 인도차이나는 현재도 비행기로 4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에 있다. 그러나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베트남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 관계의 밑바탕에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적 대결과 대립, 그리고 식민지 경험이라는 역사적 공통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결과 남한과 남베트남,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 형성과 발전은 마치 ‘쌍둥이’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대칭적인 모습을

<sup>1</sup> 본 평자도 2015년 이곳을 직접 방문한 바 있다. 베트남 시골 마을에서 마주한 ‘열사’라는 붉은색 한글 묘비석이 강렬한 기억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보였다.

베트남은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되었다. 그러나 강대국에 의해 국토는 북위 16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인도차이나에서 일본은 떠났지만, 과거 식민지배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프랑스가 다시 주둔하였고, 이른바 1차 인도차이나 전쟁(항불전쟁)이 시작되었다. 1954년 5월 7일 그 유명한 디엔비엔푸(Dien Bien Phu) 전투로 전쟁은 일단락되고, 전후 처리를 위한 제네바회담을 통해 북위 17도선을 기준으로 다시 분단되면서 남북 베트남이 만들어졌다.

저자는 이 책 제2장에서 1950년대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 형성을 다루고 있다. 북한은 6·25전쟁이 발발하기 5개월 전인 1950년 1월 호찌민(Ho Chi Minh)이 이끄는 북베트남을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1948년 9월 정부를 수립한 북한에게 북베트남은 12번째이자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몽골에 이어 3번째 수교국이었다(사회과학출판사, 1985: 60). 반면 북베트남에게 북한은 중국, 러시아에 이어 3번째 수교국이었다. 남한은 1955년 공화국으로 탄생한 남베트남(베트남공화국)을 승인하고, 1956년 5월 국교를 맺었다(외교부 동남아2과, 2023: 154, 195).

이 시기 북베트남은 6·25전쟁 중이던 북한에 위문단을 보냈고, 남베트남지역에 수립되었던 베트남국(State of Vietnam)은 유엔을 통해 1만 1,943달러를 남한에 지원하기도 하였다. 1957년에는 남북 베트남의 최고지도자였던 호찌민과 응오 딘지엠(Ngo Dinh Diem)이 북한과 남한을 방문하였다. 이어서 1958년에는 김일성과 이승만 대통령이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을 방문하였다. 이때부터 남북한과 남북 베트남 간의 대칭적 모습이 구조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남북한과 남북 베트남의 관계는 대결과 대립이라는 상황 속에서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1960년대 베트남전쟁이 본격화되자 각각의 군대를 파병하면서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갔다.

### III. ‘혈맹’의 계기가 된 북한의 참전

이 책의 가장 강렬한 첫인상은 ‘혈맹’이라는 책 제목 그 자체이다. 우리에게 ‘혈맹’이라는 단어가 낯설지만은 않지만, 그것이 북한과 북베트남 관계라는 점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과연 북한과 북베트남을 ‘혈맹’이라고 까지 부를 수 있을까? 실제로 저자는 책 제목을 ‘혈맹’이라 하였지만, 책의 내용에서는 ‘혈맹’보다는 ‘밀월’, ‘동맹’, ‘형제국가’ 등의 용어들을 더 자주 쓰고 있다.

그래서일까? 이 책에는 ‘평양,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전쟁’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베트남전쟁이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를 결속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는 암시일 듯싶다.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향해 함께 피 흘리며 싸웠던 북한과 베트남의 역사적 경험이 혈맹의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은 1964년 9월 의료부대와 태권도교관단을 시작으로 1973년 3월까지 연인원 32만여 명의 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하였다. 이른바 ‘자유 세계 우방군’의 일원으로 남베트남을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5,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1만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내적, 외적으로 한국과 남베트남 그리고 미국은 전쟁을 함께 한 동맹이었다.

이에 반해 북한의 참전은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베트남전쟁 기간 북한이 이 전쟁에 많은 관심이 있었음은 명확히 확인되고 있었다. 북한은 이 전쟁을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북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국제주의적 의무’라고 강조하였다.

사회주의 진영의 국제주의적 의무가 정치적 명분이었다면, 군사적 실리도 추구하였다. 6·25전쟁 당시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은 전쟁터를 ‘최고의 학교’라고 하였다. 북한도 베트남 전쟁이 실전경험을 쌓고, 한국 및 미군과 대결하면서 전략 전술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하였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눈에 띈다. 통상 군대의 해외 참전은 그 민감함으로 인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기본이다. 그러나 북한이나 북베트남 그 어느 쪽도 자신들이 먼저 파병을 제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미엔 박사가 발굴한 베트남 사료에는 파병이 북한의 제의와 북베트남의 수용으로 성사

된 것으로 나와 있다. 반면, 북한의 문헌에는 북베트남의 요청으로 파병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다. 양측이 서로 상대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것은 외국 군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당시 북베트남의 입장이 고려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북한은 베트남에 다양한 종류의 물자제공과 자국의 군대를 파병하였다. 이 책에 따르면 북한은 1965년부터 1968년까지 북베트남에 3,000만 루블의 경제적 무상지원을 하였고, 공군과 심리전 전문가를 파병하였다. 북한 공군과 심리전 전문가(또는 부대)의 파병은 베트남 자료 이외에도 여러 자료를 통해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도미엔 박사는 이러한 사실을 베트남 내부자료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이 책 제3장의 북한-북베트남의 연대성 확보(1960~1967)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도미엔 박사의 연구를 특히 돋보이게 하고 있다.

물론 도미엔 박사가 규명한 내용 중에는 기존연구와 다른 부분도 있다. 이를테면 방공토굴을 구축하기 위해 북한이 파견한 공병부대를 ‘북한 기술자’로 구분하며 군대의 파병과는 별도로 다루는 부분이 대표적이다. 북한도 2000년 재일 조총련 기관지를 통해 전쟁기간 중 북베트남의 ‘갱도 건설’을 지원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도미엔 박사는 이들을 베트남 측이 정의한 ‘기술자’로 보는 것이 적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의 프리브나우(Merle Pribbenow)는 베트남 공병부대의 역사자료를 인용해 1965년도부터 북한 공병부대가 파견되어 북베트남의 지휘 시설과 비행장 건설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고려해 보면 기술자보다는 군대의 파병이 맞을 듯싶다.

어찌 되었든 북한은 북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해 물자를 지원하고 군대를 파병하였다. 자국 군대의 해외파병이 지니는 정치 외교적 민감함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북한과 북베트남에게 특별한 역사적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을 통해 양국관계가 더욱 밀착되어 이른바 ‘밀월관계’를 형성해 가는 데 중요한 동인이 되었음을 보여 준다.

#### IV. 북한의 군사도발이 양국관계 이완의 한 요인

도미엔 박사는 북한과 북베트남이 비슷한 역사적 경험과 공동의 반미의식을 통해 1960년대 중반 밀월관계를 형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베트남전쟁 시기에 역설적으로 양국관계의 이완도 시작되었다는 저자의 분석이다.

저자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1960년대 후반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도발에 관한 부분이다. 1960년대 후반은 북한의 군사모험주의로 불릴 정도로 군사도발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다. 도미엔 박사는 베트남전쟁 시기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도발이 결과적으로는 북베트남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양국관계를 이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한다.

이 책의 제4장 북한·북베트남의 관계 이완(1968~1974)에는 이러한 과정들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특별히 1968년 1월 발생한 북한의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저자는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가 국제적 관심을 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상대적으로 북베트남에 대한 관심은 낮아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1968년 1월 북베트남이 실시한 구정공세(Tet Offensive)에 대한 관심을 빼앗아 갔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평양주재 루마니아 대사의 외교전문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북베트남 외교관들은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가 ‘전망도 없이 적절한 혁명적 근거도 없이 우발적 행동’으로 국제 여론의 관심을 끈 사건이고, 이로 인해 베트남전쟁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 1968년 2월 8일 개최된 북한 인민군 창건일에 북베트남 외교관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귀국해 행사에 참석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북한의 강도 높은 군사도발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을 받고, 항미투쟁에서 북베트남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데 활용되었다고 간주하였다.

이러한 저자의 평가에 대해서 본 평자도 동의한다.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가 김일성이 북베트남을 지원했다기보다는 베트남으로 향해 있던 국제적 관심을 김일성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한 도발이었다는 점이다. 김일성과 호찌민은 동반자이면서도 경쟁자였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주된 논쟁은 1960년대 후반 북

한의 군사도발이 한반도를 베트남의 제2전선을 간주하고, 미군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의 도발이 국제적 관심과 사회주의 진영의 지원을 얻기 위한 것이었고, 이것이 북베트남에게는 불만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sup>2</sup>

저자는 북한과 북베트남 관계의 이완을 분석하면서 그 시작은 경제지원 감소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가 베트남 국립자료센터에서 발굴한 베트남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북베트남에 대한 경제지원은 1969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저자는 양국관계의 이완과 경제지원의 감소에는 통일방식에 대한 이견도 한 요인이었다고 설명한다. 북한은 북베트남이 전쟁의 종결을 위해 평화회담을 진행하였던 것이 한반도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남한에서는 남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과 같은 존재를 건설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다른 이유로는 1970년대 들어서면서 북중관계가 복원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2개의 베트남'이 공존하는 현상 유지 노선을 추구했던 중국의 입장에 북한이 동조해 갔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저자는 1960년대 말부터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가 느슨해진 이유에는 중국·북베트남 관계의 악화와 북한·중국의 관계 회복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1950년 국교를 맺고 전쟁을 통해 밀월관계를 형성해 나가던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가 거꾸로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계 이완을 맞았다는 저자의 분석이 흥미로운 대목이다.

## V. 양국관계의 갈등과 북한의 과거 기억 호명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이 패망하면서 베트남은 통일을 이루었다. 김일성은 베트남의 통일을 축하해 주었고, 양국의 지속적인 친선관계를 강조하였다. 외형적으로는 베트남의 '통일전쟁'을 지원한 북한이 통일 베트남과 높은 수준의

<sup>2</sup> 이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던 상황에서 2023년 중동분쟁이 발발하자 기존의 관심이 이스라엘과 중동으로 이전하는 상황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우의를 가질 계기가 마련된 셈이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 베트남과 북한의 갈등이 노출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저자는 이 책 제5장에서 1975년 베트남전쟁 종결과 북한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베트남 통일에 대해 북한이 축전은 보냈지만, 그 속내는 매우 불편했다고 한다. 단적인 예로서 북한방송을 통해 베트남 통일을 언급해 달라는 평양주재 베트남 대사의 요청을 북한이 거부했고,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도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

저자는 새롭게 발굴한 베트남 외교문서를 통해 북한과 통일 베트남의 갈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매우 흥미롭다. 평양주재 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통일에 대해 북한이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 당국의 통일방식에 부정적 반응을 가질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즉, ‘주체사상’ 없이도 ‘미제’에 승리할 수 있었던 베트남 방식에 대해 북한 지도자들이 ‘질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의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과 통일방식에 대한 북한과 베트남의 태도는 이전부터 존재했었고, 베트남 통일 이후 본격화되었다는 설명이다.

북한과 베트남 간에 통일 이후 드러난 갈등은 이전에도 알려져 있었다. 대표적 사례로 1978년 발생한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당시 북한은 베트남을 비난하였다. 이어진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전쟁, 즉 중월전쟁 때에도 그러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과 중국은 과거 항일 무장투쟁과 ‘항미원조’ 전쟁을 함께한 ‘혈맹’이었다. 그리고 1961년 7월 북한과 중국 간의 상호원조 조약은 일방이 침공을 받으면 자동적인 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북한이 한동안 베트남에서 대사관을 철수시키고, 무관부도 운용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전쟁으로 형성된 북한과 베트남의 동맹이자 혈맹관계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통일 이후 북한과 베트남의 갈등은 이보다 일찍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전쟁 이후 북한이 F-4 팬텀기 등 베트남에 남겨진 미군의 무기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베트남이 거부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참전의 경제적 대가도 요구했지만, 베트남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가 잠시나마 복원되는 계기는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가 도래했을 때였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기 속에서 내부의 ‘단합’을 위해 북한, 베트남, 중국이 일종의 공동전선을 형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2년 베트남과 중국이 한국과 국교를 맺고, 1995년에는 베트남이 미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북한과의 관계는 다시 냉각기에 돌입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베트남을 향해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불러오려고 하였다. 그 시작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이어진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무렵 북한은 북한군의 참전 사실을 내부 선전과 교육용으로 활용하였고 김정일의 선군정치 소재로 과거 비밀에 부쳐던 참전 사실을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연합뉴스의 북한군 전사자 묘지 보도가 나왔을 때 북한은 이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유해를 평양으로 이송해 인민 영웅 열사묘에 안장하였다.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개최한 성대한 귀환 행사는 이들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2001년에는 『김일성전집』에 파병부대에 대한 김일성의 연설문을 수록하였고, 2009년에는 기록영화를 제작하였으며, 2012년에는 소설로도 출간하였다. 2012년 김정은은 공군사령부를 방문해 베트남 참전 사실을 언급하였다.

북한은 왜 그동안 비밀을 간직하던 베트남 참전 사실을 계속해서 언급했을까? 북한의 참전 사실에 대한 공개과정은 매우 ‘준비된 공개’였음을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공개의 대상은 국제사회라기보다 현재의 베트남을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베트남을 향해 자신들의 참전을 잊지 말라는 ‘경고’이자 동시에 베트남에서 자신들이 흘렸던 ‘핏값’을 잊지 말라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북한의 경고가 베트남에도 전해진 것이었을까? 베트남도 북한의 ‘경고’에 화답하기라도 하듯 2002년 5월 쩌득르엉(Tran Duc Luong) 국가주석이 50명의 수행원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였다. 베트남 주석의 방북은 1957년 호찌민 이후 45년 만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베트남 정부는 생존해 있는 북한의 참전 조종사와 유가족을 베트남으로 초청해 참전지역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1990년대 북한이 식량난을 겪을 때 베트남은 식량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과거 북한의 참전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고 알려지기도 하였다.

북한이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호명한 것의 최고 이벤트는 2019년 나타났다.

북한이 미국과의 2차 정상회담을 하노이에서 개최한 것이다. 개최 장소를 놓고 북한의 참전이 다시금 조명되고, 하노이 외곽의 북한군 묘지에도 언론의 취재가 이어졌다. 북한이 과거의 기억을 호명한 것이 효과를 본 것이다.

## VI. 북한과 베트남, 과연 혈맹이었나?

동맹의 관계가 함께 피를 흘린 특별한 경험을 공유한다면, 우리는 이를 혈맹으로 부르기도 한다. 우리가 사회주의 진영에서 혈맹관계를 꼽으라면 북한과 중국이 우선 떠오른다. 두 나라는 국공내전과 6·25전쟁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면서 형성된 전통적 혈맹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자국 이익에 기반한 관계이자, 오랜 시간 부침을 겪으며 전개되었다. 반면, 북한과 쿠바는 14시간이라는 시차와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놓고 전통적 우방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과 베트남을 혈맹이라고 평가할 만하냐?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붉은 혈맹’이란 분명코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 속에서 함께 피 흘린 역사가 내포된 의미일 것이다. 여기에 ‘붉은’이라는 수식어는 이념적 동질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저자가 지적하듯,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는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베트남전쟁을 통해 미국을 상대로 두 나라의 관계는 밀월관계를 넘어 동맹의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베트남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두 나라가 함께 피를 흘렸기에 ‘혈맹’이라는 표현도 틀리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과 베트남의 혈맹관계는 현재도 유효한 것인가? 과거에는 그랬을지라도 현재 두 나라의 관계를 동맹이나 혈맹으로 부르는 것은 과한 듯싶다. 오히려 북한과 쿠바처럼 전통적 우호 관계라는 평가가 적당하지 않을까 한다. 특별히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된 동맹을 규율하는 조약도 확인하기 어렵다. 어쩌면 북한과 베트남은 한때 혈맹의 관계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자국의 이익에 기반한 불편한 동맹 또는 베트남전쟁이 만들어 낸 ‘한시적 혈맹’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냉혹한 국제관계의 현실 속에서 북한과 베트남의 혈맹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만한 근거는 약해 보인다. 다만, 동맹의 관계를 이념적·정치적·역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북한과 베트남 모두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1950년 수교 이후 다져왔던 양국의 역사는 여전히 두 나라 관계에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념적 측면에서 혈맹은 유지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변 상황은 많이 변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압도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1976년 7월 새롭게 통일 국가로 탄생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현재의 베트남)은 1992년 12월 22일 대한민국과 수교하였다.

양국은 수교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비약적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2022년 말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국으로 성장하였고, 한국은 1989~2022년 까지 총 24억 6,117만 달러(잠정)를 베트남에 투자한 1위 국가가 되었다. 2023년 3월 기준 주당 397회의 항공기가 두 나라 간에 운항될 정도로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외교부 동남아2과, 2023: 172-174).

이것은 한국과 베트남의 현재 상황을 경제적 동맹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동맹은 북한이 아닌 한국과 맺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붉은 혈맹’이 북한과의 이념적 동맹을 나타낸다면, 현재의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경제적 동맹이라고 봐야 할 듯 싶다.

## VII. 향후 연구에 대한 기대

국내에서도 국가기록원을 비롯해 여러 대학에서 베트남 현지의 사료를 수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자가 북한, 남한, 그리고 베트남 관계에 관한 베트남 사료의 특화된 수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한계에는 언어적 제약도 물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베트남 사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제약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도미엔 박사는 새로운 베트남 사료의 발굴을 통해 국내 북한사 및 베트남전쟁사 연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점에서 도미엔 박사는 국내

냉전사 연구의 귀중한 ‘보배’ 같은 존재로서 도미엔 박사에 대한 학계의 기대도 크다고 할 것이다.

한국과 베트남의 냉전사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분야가 존재한다. 한반도와 인도차이나의 대칭적 관계가 전개되었던 냉전 시기 남한과 남베트남,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두 지역의 관계사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한반도 냉전사 연구를 위해서도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연구 분야이다.

이 책은 도미엔 박사의 학위 논문을 책자로 발간한 것이다. 그런 만큼 여러 여건상 이 책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분야도 간간히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면, 우선 1975년 베트남전쟁 종전 이후부터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하는 1992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항이다. 이 기간에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베트남과 중국의 분쟁이 있었다. 저자도 이 책의 결론에서 이 부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베트남전쟁 기간 중 북한 내에서 있었던 지원 활동에 관한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군대를 베트남에 파병한 것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투원들의 훈련을 북한 내부에서 제공하였다. 당시 평양에는 북베트남 대사관뿐만 아니라 임시 혁명정부의 대표부도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에 관한 사항도 더욱 온전한 역사의 풍경화를 그리는 데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저자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이 책이 자신의 연구 중 베트남전쟁기 북한-북베트남 관계사에 대한 부분만 먼저 출판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저자는 베트남전쟁 시기뿐만 아니라 냉전 시기 북한과 북베트남, 베트남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곧 출간할 것임을 내비치고 있다. 이 분야 연구자이자 독자로서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른 시일 내에 도미엔 박사의 후속 연구성과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고영환. 1993. 『평양 25시』. 고려원.
- 사회과학출판사. 198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외교부 동남아2과. 2023. 『2023 베트남 개황』. 외교부.
- 이신재. 2017.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 군사편찬연구소.
- 정기중. 2012. 『운명』.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 최명해. 2009.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오름.
- Gaddis, John Lewis. 2002. *The Landscape of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ribbenow, Merle. 2019. *North Korean Military Engineer Regiment Helped Build Secret Underground Headquarters Complex during the Vietnam War*. Wilson Center.